

# 박물관사람들

2015년 봄 49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감은사터 동탑 사리기 내함, 국립중앙박물관

### 책을 만들면서

훈훈한 봄바람이 머릿결에 속삭이면...(水)  
또, 그리고 다시 희망을 품는다...(愛)  
지극한 정성, 작은 귀이개에도, 존귀한 사리기에도...(文)  
고체인 듯 고체 아닌 액체 같은 너...(음)

새 봄나라에 따뜻한 발자국을 먼저 내딛는다...(쟁)  
봄비가 촉촉하게 만물을 깨우는 소리가 이려하러니...(鉉)  
찬란한 우리의 문화유산,  
장엄한 종교세계에 눈이 부십니다...(媛)

#### 기획 | 사리장엄구

- 04 사리장엄구-정성과 신심을 담은 공예
- 08 감은사 프로젝트
- 11 탑 속의 탑

#### 문화칼럼

- 14 마루장식기와, 시선을 탐하다

#### 전시실 산책

- 17 빛의 예술-보헤미아 유리

#### 회원마당

- 20 내 안의 성자, 나한
- 23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 인터뷰

- 26 유쾌 상쾌 통쾌한 '바람'

#### 학술상

- 29 능산리사지 백제금동대향로와 금동광배의  
합금 조성 및 도금층 특성

#### 숨은 전시

- 33 胡蝶夢

- 34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박물관사람들

발행일 2015년 3월 3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김정태 기획 신병찬 편집회원 강현자·계운애·김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서승연 발행처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02)2077-9790~3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inmk.org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리장엄구

## 정성과 신심을 담은 공예

글 김연수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장

대다수 신앙의 대상물은 대체로 신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종교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신앙의 대상이 역사 속의 인물일 경우에 그가 남긴 것이 특별한 것으로 남아 숭배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불교의 경우 석가모니 부처께서 열반에 든 후 그의 유체, 사리에 대한 신앙은 곳곳에 이를 위한 구조물인 탑이 세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불교에서 탑이 부처의 존상인 불상과 함께 중요한 상징물로 여겨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든 후 그 유해를 화장하여 나온 사리를 나누어 불탑을 건립하였다고 전해진다. 탑이란 바로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무덤인 점에서 자연히 불교도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탑의 재질이 돌이나 흙, 나무 어떤 것이든 탑의 心礎石이



01 부여 왕흥사 목탑지 출토 사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02 익산 미륵사지 서석탑 사리장엄구 출토 모습

나 기단부, 또는 탑신부 등에 사리안치소를 만들어 사리를 봉안하였으며 이러한 사리를 보호하거나 장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리기와 그에 관련된 사리장엄구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사리’란 팔리(pali)어인 ‘사리라(Sarira)’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으로서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뼈나 그 결정체를 眞身사리라 하였고,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을 기록한 경전은 특별히 法身사리라 하여 사리와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우리나라의 사리장엄구 가운데 사리기는 금, 은, 동, 유리, 수정, 곱돌(蠟石), 나무 등으로 그 재질이 다양하며 3겹, 4겹,

5겹에 이르기까지 포개어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사리장엄구의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형 또는 방형의 합·함, 향아리 또는 병, 사각 또는 팔각의 堂塔形, 그릇을 거꾸로 얹은

듯한 覆鉢形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리 안쪽에 놓이는 사리기일수록 더 좋은 재료를 쓰게 되며 가장 안쪽의 그릇은 금이나 유리, 수정으로 만든 병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에 사리가 전래된 것은 549년에 중국 梁나라의 武帝가 沈湖를 통해 신라 진흥왕에게 보낸 것이 가장 이른 기록이다. 실물자료로는 부여 능산리 목탑터 아래의 심초석 위에서 발견된 백제 위덕왕대인 567년에 제작된 화강석제 사리감이 있다. 또한 충남 부여에서 2007년 출토된 왕흥사지 사리기는 577년의 명문이 청동외함에 새겨져 있고 그 함 안에 은제 사리호, 금제 사리병으로 구성되어 사리장치의 정석을 보여준다. 그 후 2009년 미륵사지 서석탑 해체복원공사 중 심초석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외면을 아름답게 시문한 금·은제 사리기와 함께 많은 공양품, 사리봉안



03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립전주박물관

에 관하여 기록한 금동제 명문판 등에서 백제 왕실 발원 사리기의 품격을 잘 보여준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에서는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장엄구와 함께 19매의 순금제 금강경판이 함께 발견되어 우리나라의 사리신앙에서 법신사리가 중요시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신라의 대표적 사리구인 분황사 모전석탑의 사리장엄구는 석함 속에서 선덕여왕 창건시에 납입되었던 은침통, 금·은 바늘과 가위, 금동제 장식품 등의 사리공양품과 함께 그 이후 탑의 개

보수시 추가된 것으로 판단되는 고려시대 동전, 은함 등 많은 수의 생활용품이 발견되었다. 초창기의 사리장엄구에는 사리기 이외에 사리봉안의식에 참여한 왕실과 귀족들의 물품 공양이 마치 고분에 부장품을 넣듯 행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통일신라 682년에 제작된 감은사 동서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기는, 상자형의 청동외함과 송림사 전탑 사리기와 유사하게 기단에 보개를 덮은 모습의 내함, 그리고 이 내함 내부에는 수정제 사리병을 안치하여 본격적인 사리장엄 형식을 갖추게 된다. 이 감은사 사리기의 방형외함에 장식된 사천왕상은 이국적인 무장의 모습을 하고 있어 당시 통일신라 미술의 국제적인 면모를 반영하고 있다.



04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사리장엄구, 불교중앙박물관

한편 황복사탑에서는 방형의 금동함 안에 크기를 줄여가며 은합과 금합, 녹색 유리사리병을 넣은 사리용기 세트와 함께 순금제의 불상 두 점이 발견되었다. 시대를 약간 달리하며 봉안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교한 이 두 점의 불상은 당시 불교 조각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금동함 뚜껑에는 탑의 구성과 관련된 기록이 새겨져 있는데, 탑에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납입되었으며 706년에 사리장

의 예와 같이 99개의 흙이나 납석으로 만든 소탑을 사리기와 별도로 넣게 된다. 고려시대 사리기 역시 일부 신라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여러가지 새로운 요소가 첨가된다. 즉 전각형이나 복발형과 같은 복잡하고 화려한 모양에서 원통형, 팔

엄구가 안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 중엽에 와서는 황복사 탑에서 처음으로 납입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영향으로 99개, 혹은 77개의 작은 탑을 만들어 그 하나하나에 다라니를 봉안하게 되며 이러한 탑을 ‘무구정탑’이라 했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목판으로 인쇄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된 것은 물론이고, 그 경전의 내용에 의거하여 황복사탑 금동외함이나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금동원합처럼 사리기 외면에 99개의 탑을 새기는 단순한 형식이었다가 9세기가 되면 봉화 서동리 동삼층석탑

각당형과 같은 단순한 형태로 바뀌며 그 바깥상자를 청동제 대신에 도자기로 만든 예가 많아진다. 또한 유리제 사리병이 차츰 수정이나 금속제병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고려후기에 제작된 수종사 부도 출토 사리기이다. 중국 원나라의 대형 주름 청자항아리를 사용하여 외사리기를 삼고 그 내부에는 팔각의 지붕과 투각된 창호로 구성된 팔각당형의 은제 사리기와 수정제 사리병을 안치한 형식이다. 이 시기에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라마탑의 모습을 한 사리기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금강산에서 출토된 이성계 발원의 사리기(1390-91년)는 여기에서 조금 변화 발전된 양상을 보여준다. 가장 바깥에 놓이는 용기를 백자로 만들고 내부로 가면서 동제의 발과 팔각당형 사리기, 다시 이 안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라마탑의 모습을 한 내사리기, 원통형 유리제 사리병을 안치한 형식이다. 고려 후기에 원나라 불교가 고려로 유입되어 탑과 사리기, 불상 등에서 라마불교미술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05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국립춘천박물관

조선시대의 사리장엄구는 불탑과 함께 스님들의 부도와 불상 안에 넣는 복장유물에서 많은 수가 발견된다. 사리기의 형태는 형식에 상관 없이 매우 다양해지지만 뚜껑이 있는 원합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고려말에서부터 사용되던 백자, 또는 대리석 등의 용기뿐만 아니라 후대로 가면서 유제 용기도 널리 쓰였다. 사리병은 유리 대신 수정, 옥, 호박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지며, 오행설에 따라 오색실, 오곡, 식물 같은 여러가지 공양품을 함께 넣는 것도 조선시대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이처럼 사리장엄구는 신앙의 대상인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당시에 최대의 정성과 기술적 역량을 동원하여 제작된 뛰어난 문화유산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제작시기는 물론 공양자, 그와 관련된 발원문 등의 기록이 함께 하여 한국 금속공예의 역사적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더없이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

이처럼 사리장엄구는 신앙의 대상인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당시에 최대의 정성과 기술적 역량을 동원하여 제작된 뛰어난 문화유산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제작시기는 물론 공양자, 그와 관련된 발원문 등의 기록이 함께 하여 한국 금속공예의 역사적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더없이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



01 감은사터 동탑 사리구 내·외함, 국립중앙박물관

## 감은사 프로젝트

글 문정원 회원

良志, 서역에서 건너온 나에게 신라인들이 지어준 이름이다.

錫杖寺에 머물던 어느 날 왕의 부름을 받는다. 신라 30대 문무왕은 태종 무열왕 김춘추와 문명왕후(김유신의 둘째누이)의 맏아들로서 676년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룬다. 용맹스럽고 지혜롭기로 명망이 높은 왕을 알현하니 기쁘기 그지없는 한편 일개 사찰의 수도승을 부른 연유가 못내 궁금하다. 이국적이고 극사실적인 묘사의 석장사 신장 조각에 관심을 보인 왕이 원찰의 창건 계획을 공표한다. 불심이 두터운 왕이 호국의 염원을 담아 진국사라 명명한 사찰의 건립에서 새로운 양식을 실험하는 사리장엄구 제작을 맡게 된다. 타국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하게 되다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동·서 삼층석탑은 형태와 규모가 똑같지만, 각각의 탑 안에 봉안할 두 사리구는 조각 기법이나 세부 묘사를

달리하여 차별성을 두려 한다. 서라벌에 당도할 때까지 거쳐 왔던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에서의 불교예술 이미지들을 떠올려본다. 풍토와 미감 그리고 경전의 해석, 많은 부분이 다르니 같은 주제도 각양각색으로 표현된다. 우열을 가를 수 없는 다양성을 포용하되 신라적인 독창성도 놓칠 수 없다.

외함은 상자형태로 구상한다. 직사각형의 판에 별도로 제작된 사천왕상, 악귀, 운문, 문고리를 못으로 연결하여 장식하고 테두리에 문양띠를 두르며 판과 판을 연결하면 된다. 방추형 뚜껑에는 고리를 달아 내함을 넣고 닫기 쉽게 한다. 부처님의 세상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사천왕상은 틀 위에서 금속판을 두드려 형태를 만드는 압출기법으로 세밀하게 표현할 것이다. 방위에 따라 형태, 지물(창, 검, 탑), 표정을 모두 다르게 하고 눈썹과 수염을 검게 칠해 실제감을 더하려 한다.

내함은 외함 안에 안치되며 기단, 난간, 천개의 건축적 요소를 갖춘 殿閣形을 시도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관을 나르는 가마 형태와도 유사하여 寶帳形으로도 부른다. 기단은 眼象 형식으로 동탑 사리구의 안상에는 비천상을, 서탑 사리구에는 천부상을 배치한다. 네 모서리마다 사자를 세우고, 기단부의 상·하를 연화문으로 장식해본다. 동탑 사리구의 난간 안쪽에는 사천왕상과 승상들을, 서탑 사리구에는 악기(바라, 북, 피리, 비파)를 연주하는 천인상과 동자상들을 세울 것이다. 기단부 윗면 중심에 안치할 수정 사리병에 금뚜껑과 금받침을 끼우고 복발형 장식과 보주로 덮으니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난간의 네 귀퉁이에 위치한 기둥에 천개를 끼워 맞춰본다. 천개는 얇은 금동판을 투조하여 보살, 비천, 종의 형상으로 만든 장식을 매달아 화려하고 정교하게 장식한다. 새로운 형식과 기법의 시도에 밤을 잊은 날들이 스치듯 달려간다.

신문왕이 보위에 오른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 지내면 용이 되어 왜구를 막겠다는 부왕의 유언을 지킨 신문왕, 선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에

서 '感恩寺'로 사찰 이름을 바꾸고 용이 된 문무왕이 바닷물을 따라 절 안으로 드나들도록 금당 밑에 통로를 만든다. 이전대는 문무왕을 모신 대왕암을 바라보며 신문왕이 망배한 장소이다. 용이 나타나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萬波息笛을 만들 대나무를 건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두 왕의 위대한 행적이 마음 속 깊이 새겨진다.

금속공예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정밀작업의 연속이다. 숨 쉬기도 조심스러운 수은아말감에 의한 도금은 동판마다 네 번은 실시해야 금가루의 박락이 적어지고 표면이 매끈하다. 천개를 장식할 풍탁(종 모양의 장식)의 길이는 5~7mm이고 내함 사천왕상의 얼굴처럼 쌀알크기에 불과한 장식도 많다. 장식용 금 알갱이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0.5mm 이하로 1000도에 이르는 불의 온도를 20도 범위 내에서 조절해야 은이 섞인 땀새로 온전히 붙일 수 있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사리구의 전체 높이는 25cm 내외로 겨우 한 뼘 정도이다.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 그리고 두 왕이 표상하는 충효의 심오한 가치를 미세한 세상에 장엄하게 담아내야 한다.



02 감은사터 동탑 사리구 내함 추정복원도



03 감은사터 동탑 사리구 외함 추정복원도

682년, 드디어 감은사가 완공된다. 雙塔一金堂 가람 배치에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이 넘친다. 3층 탑신 안에 마련된 사리공 안에 사리구 일체가 여러 공양물품과 함께 봉안되다니 감회가 새롭다. 두 탑을 올려다보니 여러 생각이 이어진다. 먼 훗날 후손들은 감은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세월의 비바람에 목조 건축물은 먼지가 되고 작금의 영광도 속절없이 사라질 뿐인데, 역사서가 미처 신지 못한 이야기들만이 신화와 전설이 되어 영원하리라.

1959년에 감은사 서탑 그리고 1996년에 동탑을 해체 수리할 때, 매납 당시 그대로의 사리구가 차례대로 발굴된다. 오랜 복원작업 후 본래의 빛과 형태를 회복하자 1300여 년 전의 역사가 부활한다. 신라의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국제성과 독자성을 동시에 갖춘 당대 최고의 금속예술품으로 평가받는다.

\*선덕여왕 재위 시 창건된 사천왕사에서는 감은사 사리구 외함의 사천왕상과 모습이나 표현기법이 흡사한 사천왕상 채유 소조가 발견된다. 『삼국유사』에는 도술을 포함한 여러 재주를 지닌 고승, 양지가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가 창건한 석장사는 포대를 걸어놓은 지팡이가 저절로 날아다니며 施主를 받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세기의 걸작인 감은사 사리장엄구를 탄생시킨 불멸의 장인을 밝힌 문헌은 아직까지 없다. 학계에는 양지가 제작자라는 의견도 있다. 신상기록이 불명확한 채 이름만 남아 있는 양지는 신분상 천민, 혹은 재료의 사용이나 간다라 미술 양식과의 유사성을 볼 때 신라로 귀화한 중국인 아니면 서역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른 시기부터 신라가 보여준 개방성과 국제성을 감안하면 '감은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가 그리고 역사의 기록자로 활약한 서역인은 충분히 있음직한 인물이 아닐까. 문화다양성을 다루는 현대 담론에 기대어 양지를 7세기 신라의 문화적 역량에 매혹당한 신묘한 능력의 이방인으로 가정해 본다.\* 🍷



04 감은사터 전경(1986년 촬영)

# 탑 속의 탑

글 강헌자 회원

아이들은 탑을 쌓는 데 공을 들이는 것보다 허물어지는 즐거움을 맛보려고 탑을 쌓는다. 반면 어른들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공들여 탑을 쌓는다. 높이 오르고 싶은 욕망은 옛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다. 옛 사람들은 하늘만큼 높이 오르기를 꿈꾸었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이르기를 기원하였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대상으로 탑을 세웠다. 탑의 꼭대기가 하늘로 이어져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은 탑을 만들어 실제 탑에 봉안하는 일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는 불경에서 비롯되었다. 이 경전은 다라니 주문 99벌 혹은 77벌을 써서 작은 탑에 넣어 실제 탑에 봉안하면, 수명이 연장되고 모든 죄가 소멸되어 바라던 바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설하고 있다. 처음 이 경전의 내용을 실현한 것은 경주 구황동 황복사터 삼층석탑의 사리구에서다. 이 사리구에는 주조된 소탑을 넣은 것이 아니라 사리외함 네 면의 금동판에 99기의 작은 탑을 선각으로 묘사해 놓았다. 황복사터 삼층석탑의 사리구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식되고 봉안되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법신사리로 탑에 집중적으로 넣어진 것은 통일신라시대이다.



01 청동 공양탑, 국립중앙박물관



02 나원리 오층석탑 출토 사리구, 국립중앙박물관



03 청동 사리구, 국립중앙박물관



04 황복사터 삼층석탑 출토 굽다리잔, 국립중앙박물관

이처럼 소탑을 만들어서 봉안한 것은 8세기 나원리 오층석탑의 사리구와 9세기 소탑 제작의 확산을 보여주는 해인사 길상탑에서 발견되었다.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의 금동제 사리함에서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불상, 금동제 삼층소탑 1기와 3기의 목제 구층소탑, 다수의 나무 공양탑이 출토되었다. 금동 공양탑 3기는 높은 기단 위에 9층을 올린 누각 모양의 탑인데, 서로 크기가 조금씩 다르게 제작되었다.

또한 1966년 해인사 길상탑 내부에서 나온 157기의 소탑과 최치원이 지은 4장의 탑지석이 도굴당했다가 압수되었다. 탑지는 진성여왕 때인 통일신라 말의 사회 혼란기에 봉기한 도적 폐로부터 寺賣를 지키다가 순교한 해인사 승려들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서 탑을 건립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탑은 원래 99기와 77기를 두는 것이 원칙이므로 19기는 없어진 듯하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사상에 따라 봉안된 99기의 소탑은 현재 봉화 서동리 삼층석탑과 해인사 길상탑에서만 발견된 귀중한 유물이다.



05 황복사터 삼층석탑 출토 금제여래입상,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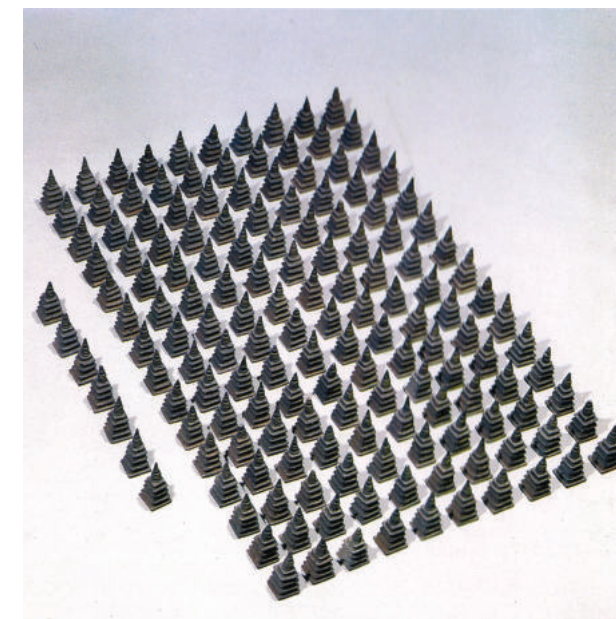


06 황복사터 삼층석탑 출토 금제아미타불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이렇듯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가르침에 따라 탑 속에 작은 탑들을 넣었는데, 작은 탑 안에도 탑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넣었다. 이러한 소탑들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이루어져 실제 탑과 동일한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심의 깊이를 말해 준다. 불교도들은 9만 9천의 사리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탑을 봉안함으로써 9만 9천의 소망을 기원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원은 1932년 금강산에서 발견된 이성계 발원 사리구에서도 나타난다. 은기 3점, 동기 1점, 백자 5점으로 이루어진 이 사리구에는 이성계와 부인 강씨, 그리고 후에 조선의 개국공신이 된 이들을 비롯한 1만여 명이 미륵을 기다리며 금강산 비로봉에 사리구를 모신다는 내용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 발원문에서 이성계의 야망을 엿볼 수 있다.

소탑과 경전 외에도 불상을 비롯한 부처의 옷, 지팡이, 발우 등을 법신사리로 여겨 탑 속에 넣었다. 그들은 백·천 개의 탑을 조성하는 공덕을 쌓기 위하여 탑 속에 사리뿐 아니라 부처를 상징하는 공양물을 넣어 부처의 사후 세계를 조성해 놓았다. 부처가 사는 천상세계를 구현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모든 재앙이 소멸하여 많은 복을 받기를 바랐던 것이다. 🌿



07 해인사 길상탑 출토 소탑, 국립중앙박물관

# 마루장식기와, 시선을 탐하다

글 정은정 회원



『고려사절요』에는 고려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의 影殿 중루를 개축하면서 용마루 끝을 장식하는 鸞頭를 만드는 데만 황금 650냥, 백은 800냥을 들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세종 15년 7월 12일에 근정전 취두가 비 때문에 무너졌을 때, 세종이 특별히 병조판서와 공조판서에게 명하여 책임지고 복원하게 한 사실이 있다. 궁궐에서 이들 장식이 지니는 의미는 왜 이토록 각별했을까?

목조건축에서 건물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는 곳은 기와지붕이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시야를 붙들고 건물과 하늘이 맞닿는 곳을 마무리한다.

삼국시대부터 제작됐다는 기와는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모양이나 명칭이 다양하다. 그중에서 기와를 잇다가 기와 면이 서로 만나는 곳을 모양내어 높게 쌓아준 곳을 마루라고 한다.

용마루는 지붕에서 가장 높은 수평마루로 건물의 중앙을 이룬다. 용마루의 양쪽 끝에서 기와골 방향으로 내려오는 마루를 내림마루라 하고, 건물의 모서리에 45도 방향으로 추녀를 이루는 부분은 추녀마루라고 한다. 이 지붕마루에는 기능과 장식을 조화롭게 하는 다양한 기와가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시대에 따라 모양도 의미도 차이를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목조건물의 용마루에 동물 형상 기와인 鸞尾를 만들어 吉祥과 辟邪의 상징을 부여하였다. 치미는 봉황, 바다짐승, 용의 또 다른 변신이라는 여러 기원이 있다. 명칭도 후한은 反羽, 진나라는 치미, 당나라는 鸞吻, 통일신라 때는 樓尾 등 여러 가지로 불렸다. 경주 황룡사터 치미는 새 꼬리 깃털과 비슷한 모양으로 측면과 뒷면에 연화문과 인면문이 새겨져 있으며 크고 아름답다. 통일신라와 발해

에 이르기까지 중요 장식기와였던 치미는 고려시대에 당나라 치문의 영향으로 물을 뿜어 화재를 막는 魚龍形으로 형태가 바뀌게 되었다. 고려후기부터 치미와 비슷한 취두가 용마루에 오르는데 모양이 독수리 머리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무서운 형상의 龍頭도 이때부터 나타나 조선시대에 성행하였다. 고려시대에 마루 위에 등장하는 다양한 조형과 용 장식들은 조선의 雜像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자, 이제 마루장식기로 건물 외관을 아름답게 한 장인의 숨씨를 만나기 위해 가까운 경복궁으로 발길을 옮겨 보자.



이 황룡사터 치미

거대한 유교적 상징세계인 궁궐의 품 안에 들면 압도하는 위엄에 몸가짐을 바로 하게 된다. 노출된 지붕마루에서 굽어보고 있던 취두, 용두, 잡상, 吐首 등 장식기와는 무언가 의사를 전달하는 듯 능동적으로 보인다. 드러난 모양보다 속내를 읽고 싶은 마음이 전달된 것인가, 역사를 지켜낸 내밀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 같다. 그들과 익숙하게 눈을 마주치다 보니 어느 새 정전 깊숙이 들어와 있다.

취두는 이름과 달리 용의 형상으로 용마루를 삼킬 듯 물고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힘을 내리누르는 것 같다. 여러 전각의 취두 중 가장 돋보인 것은 고종이 거처했던 협길당의 취두이다. 황금빛으로 화려하고 높은 품격을 자랑한다. 용의 전신이 새겨져 있고 위쪽에 검 모양의 고정 장치가 박혀 있어 흘러내리거나 쓰러짐을 막아준다. 또한 용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는 역할도 함께 하여 계속 물을 뿜어 화재를 막아낸다는 상징적 의미도 가진다.

용두는 내림마루의 하단이나 추녀마루 상단에 사용되어 火魔를 막는 벽사의 역할을 한다.

추녀마루 위에 총총히 질서 있게 도열해 있는 잡다한 물상을 잡상이라 부른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상세히 기록된 잡상은 1920년경 발견된 『상와도』에도 거의 동일한 명칭과 도상이 실려 있다. 갑옷을 입은 장수의 모습을 한 대당사부, 병거지를 쓴 손오공의 화신인 손행자와 저팔계, 삼장법사의 셋째 제자라는 사화상, 머리에 뿔처럼 생긴 돌기가 있는 이귀박과 이구룡, 말과 비슷한 마화상이다. 사람의 형상으로 합장한 삼살보살과 비늘 몸을 가진 천산갑은 쉽게 볼 수 없지만 경복궁 경회루 추녀마루와 창덕궁 인정전 추녀마루에서 볼 수 있다. 유교 국가의 지붕마루에 서 있는 『서유기』의 주인공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煞을 막아주는 땅의 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는 신분이 건물 의장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전각의 등급에 따라 잡상의 수가 엄격히 적용되지 않은 걸 보면 규제가 잘 지켜진 것 같진 않다. 잡상은 경사진 추녀마루의 기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안된 장치일 뿐만 아니라 건물의 격을 높여주는 효과도 함께 지닌다.



02 경복궁 경회루 마루장식기와



처마 모서리의 사래 끝은 비에 노출되어 손상되기 쉬워 보인다. 토수는 신발을 신기듯 사래 끝에 씌워 부식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격식 높은 궁궐이나 사찰에서 사용되었다.

지붕마루 끝, 처마 곡선의 따듯함을 품는 기와는 望瓦이다. 지붕의 정면과 측면의 두 선이 만나 하늘로 치솟는 지점에서 합장한 손끝처럼 염원을 집중하는 곳에 망와가 있다. 궁궐에서 민간건축에 이르기까지 가장 일반화된 장식기와로 간결하지만 아름다운 기운을 극대화시켜준다.

마루장식기와에 대한 관심은 2014년 양주 회암사지 박물관 마루장식기와 특별전에서 시작되었다. 양주, 파주, 강화 등지의 출토품을 중심으로 건물의 위용과 품격을 담은 마루장식기와의 변천과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취두, 용두, 잡상에 대한 도설이 실려 있는 『화성성역의궤』 전시는 문헌기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마루장식기와의 설치는 일차적으로 기와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빗물 누수를 막는 데 있었다. 또한 마루에서 이루어지는 취두-용두-잡상-토수 등 장식 사이의 조합을 통해 건물을 수호하고 길상과 벽사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의미의 상징물이자 방편인 장식은 왕실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수단이었기에 각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마루장식기와의 특성을 알게 되니 건축물을 더 정성껏 바라보게 된다.

한국 전통 건축은 건물 사이의 거리를 비정상적으로 좁히고 시선의 각도를 어지럽히는 방법을 통해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가까이에서 바라 본 마루장식기와는 효과적 장식으로 건물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긴장과 이완을 통한 무심한 듯 충만함, 시간을 저장한 한 컷이 건물의 표정에 보이는 듯하다.

상징세계에 닿을 수 없는 부족한 안목은 마루장식기와가 가진 묘한 매력을 공감하는 데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친근함을 주는 망와의 만남이 있어 정겨웠다. 망와는 유려한 선이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멋을 선보이는 춤사위와 닮아 있고, 지붕마루 끝에 방점을 찍는 것 같아 특히 정이 갔다. 그 포근한 정취를 다른 건축물에서도 만나봐야겠다.

한낮의 북적임이 시나브로 사그라지면 높다란 곳에서 신비로움을 연출하던 마루장식기와는 역사를 담은 빼곡한 얼굴로 멀찌감치 덧없고 하찮은 인간을 내려다본다. 🐼



## 내 안의 성자, 나한

글 계윤애 회원



국립춘천박물관의 영월 창령사터에서 발견된 석조 오백나한상은 참으로 신선하다. 이제껏 보아 오던 나한상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다른 곳에서 본 나한상은 하얗게 분칠한 얼굴과 빨간 입술 때문인지 늘 낯설었는데 이 나한상은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처럼 친근하게 다가온다. 너무도 평범한 모습에 이끌려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고, 보면 볼수록 평범한 얼굴이 주는 매력에 빠진다. 투박하면서도 질박한 모습에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해진다. 돌을 깎아 만든 모습이 어찌나 부드럽고 온화한지 돌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낀다.

나한은 아라한을 줄인 말로 소승불교에서는 수행자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른 자를 뜻하며 대승불교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로서 부처로부터 불법 수호와 중생을 제도하라는 임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불법을 깨우쳐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으며, 뛰어난神通력으로 인간의 수명을 늘리거나 중생에게 복을 주고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 하여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나한신앙은 신라 말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나한전이나 응진전에 나한을 모시는 사찰이 많다.

창령사터 오백나한상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조각 기법으로 볼 때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이어지는 전통적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출토된 나한상은 300여 점이라는 수효로 미루어 보아 오백나한상으로 추정된다. 오백나한은 부처가 입멸한 후 생전의 부처가 설법한 가르침을 정리하고 편집하기 위해 제 1차 결집에 참여했던 오백 명의 비구들을 말하기도 하고, 부처로부터 미래에 부처가 될 거라는 수기를 받은 오백 명의 제자를 말하기도 한다.

창령사터 오백나한상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해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양감이 풍부한 조형적 특징을 보인다. 앞은 다양한 자세와 얼굴 표정을 사실적으로 세심하게 표현한 반면 옆이나 뒤는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각 나한상마다 독특한 표정과 자세로 개성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머리에 두건을 쓴 피모나 한상을 비롯해 가사를 머리에 뒤집어쓴 나한상, 민머리의 승려상 등 다양하다.

해학적이고 순박한 모습과 간략하게 표현된 옷의 주름 등 조선 초기의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오백나한상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느낌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제각각 독특하다. 모두 다른 얼굴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시무룩하고 어수룩한 표정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응석을 다 받아 줄 것 같은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도 있고,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심술궂고 사나운 여인네도 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아낙네의 모습에선 나를 보기도 하고 고단한 인생사가 버거웠던 듯 이마에 주름살이 깊게 파인 할머니의 얼굴에선 우리네 어머니를 떠올리기도 한다. 지그시 눈을 감고 근엄한 얼굴의 노스님은 수행 중이고, 젊은 스님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수줍은 얼굴로 무언가를 훑쳐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인간적이어서 웃음이 툭 터진다.



나한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불교의 성자를 이른다. 하지만 창령사터 오백나한상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색채도,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격리된 성스러움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이 골목 저 골목에서 흔히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인 듯 모두가 낮익다. 하나같이 순박하고 평범한 모습이다. 익숙한 정겨움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한참을 머문다.



그런데 참 희한하다. 한눈에 보아 웃는 얼굴도 있지만 언뜻 보면 무표정하고, 시무룩하고, 고단해 보이는 얼굴인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또한 웃는 얼굴이다. 그 웃음에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을 자유를 본다. 이 세상에 태어나 온갖 번뇌와 욕망으로 신산한 삶을 살았지만 종내에는 인생사의 희로애락을 뛰어넘어 깨달음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나한의 미소인가. 따뜻하고 온화하다. 거친 돌에 어쩔 그리도 푸근한 정을 불어 넣었는지 그 미소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한상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불·보살상과는 달리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표현되었다. 창령사터 오백나한상은 두툽한 옷을 입고 있거나 온몸을 이불 같은 겜로 감싸고 있는데, 이는 추운 강원도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개성 있는 표현이라 한다. 이렇듯 자유스럽고 독특한 시선으로 강원도 사람들의 순박하고 정겨운 얼굴을 빚어낸 이는 누구일까? 최고의 경지에 오른 성자인 나한을 인간사의 지극히 평범한 속성인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아낸 보편적인 인물로 새겼다. 이 나한상을 조각한 이는 보편적인 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임을 깨달았기에 오직 돌덩이에 불과한 것에다가 살아 있는 미소를, 사람의 온기를 새길 수 있었나 보다. 그 또한 구도의 성자가 아니었을까.



평범하고 인간미 넘치는 창령사터 오백나한상을 보고 감히 구도와 깨달음의 길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참선이고 수행이다.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다. 별 탈 없이 사는 것에 감사하며 감사한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내 안의 성자 나한에게 얘기한다. 하루하루 좋은 마음으로 욕심을 줄이고 성실하게 살아 그대의 얼굴을 닮을 수 있게 늘 깨어 있도록 노력하자고. 🙏

##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글 김영희 회원

지난 여름, 베트남 중부에 있는 다낭에 여행 갔을 때 들렀던 '링엄사'라는 절에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해수관음상이 있었다. 키가 무려 68미터나 되었고 세운 지 몇 년 안 되었는지 유난히 돌빛깔이 희어서 새파란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꽤나 인상 깊게 보았다. 해수관음상 조금 앞쪽에는 땅딸보 포대화상이 자루를 어깨에 메고 배를 맘껏 드러낸 채 활짝 웃으며 앉아 있었다. 날씨가 몹시 덥다 보니, 늘 그랬듯이 사원 한 바퀴 휘익 돌고, 기념사진 몇 장 찍고는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로 서둘러 올라탔을 테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불교 미술에 대한 강좌를 들은 덕분인지, 베트남 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것이다. 그러자 그동안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절을 여러 곳 가봤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링엄사 대웅전에 모셔놓은 부처님 옆에 계신 두 분이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이고 이마 위에 부처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 관음보살이라는 것도 이전엔 모르고 지나갔던 것이었다. 그리고 예전엔 불상 뒤에 걸린 화려한 그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다 보니 그야말로 곱할기 감상이었다. 그랬던 내가 이젠 오래 멈춰 서서 불교 예술을 감상하느라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포대화상도 그런 경우이다. 많은 사람들이 포대화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정성들여 절을 하는 걸 보았을 때 나는 한낱 구경꾼이었다. 한국 회화에서 만나는 포대화상은 꽤나 인상이 강하고 독특했지만 그동안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행 중에 자주 만나는 포대화상은 대머리에 배불뚝이인데 그 외모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천진스런 미소를 짓고 앉아 있는 모습이 내게는 비호감이었다. 그런데 이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왜 그를 늘 가까이 모셔두려고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바로 동양의 산타클로스였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원한다면 재물뿐 아니라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자루에서 꺼내어 나눠주는 스님이라는 것이었다.

알 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나는 박물관에 다니면서야 이 분의 기이한 행적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행 중에 포대화상을 만날 때마다 그 앞에 다가가 그 나라 사람들처럼 두 손을 합장하고 절하며 내게도 복을 좀 나눠달라고 빌게 되었다. 하다못해 토산품 가게에서 만나는 포대화상에게도 정다운 눈길을 주게 되었다.

웃음이 나는 사소한 예 중의 한 가지이긴 하지만, 매주 강좌를 들은 덕택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한낱 구경꾼이던 내가 참여자로 바뀌게 된 변화였다. 그들의 역사, 종교, 문화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시간이 허락된다면 예전에 갔었던 나라에 다시 가서 그때 못 보고 놓쳤던 것들을 찾아보고 싶어지기도 했다.

박물관 특설강좌를 듣게 된 것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다니고 있는 친구의 권유 때문이었다. 첫 해는 따로 다녀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함께 나란히 앉아 들을 수 있으니 꼭 다니라는 것이었다.

일 년은 길다면 긴 시간이어서 결정하는 데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단짝인 세 친구와 함께 박물관에 다니며 우리 전통 문화를 제대로 알고 더 나아가 인류가 어떻게 생겨나고 진화했으며 오래전부터 만들어낸 것들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 없었기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첫 시간에 강의안내를 듣고 보니 칸칸한 수료요건과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강좌들은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었다. 필기까지 열심히 해야 한다니 결코 만만하게 볼 수가 없었다.

비록 마음의 준비 없이 시작한 일이지만 나는 마음 먹고 시작하면 착실한 모범생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방에 필기도구를 갖추고 부지런히 시간 맞춰 박물관에 가는 일은 나를 모처럼 가슴 설레게 했으며 학구열에 불타던 학창시절을 떠올리기도 했다.

박물관에 가는 할머니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진가? 국악이 은은히 흐르는 국립중앙박물관 가는 길을 걷는 모습은 내 스스로도 여간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성미 넘쳐 보이는 걸모습과 달리 나는 강좌를 듣는 중에 곧잘 졸음에 빠졌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에 퍼뜩 깨어 보면 다른 이들은 모두 또렷한 눈으로 열심히 듣고 있는데 나만 졸고 있을 때도 많았다. 그래도 졸면서 주워 듣는 게 있었는지 나날이 세상 보는 눈이 넓고 깊어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만 딱 떼어놓고 보던 내 좁은 시야가 동북아시아 주변 나라들 속에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땠는지를 비교하며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 여기저기서 조각조각 알고 있던 지식들이 어느 날 구슬 꿰듯 잘 꿰어질 때면 몹시 기분이 좋았다.

박물관 강좌를 들은 이후로 박물관에 가는 것이 더 즐거워졌다. 안 보이던 아름다움이 자꾸 보이니 말이다. 내가 주말마다 머무르는 영월엔 규모가 아주 작은 개인 박물관들이 많다. 이번 여름엔 인도 박물관을 두 번이나 갔었고 조선 민화 박물관에도 다녀왔다. 민화 역시 마침 박물관에서 강좌를 들은 뒤라 더욱 흥미있었다. 개인 박물관을 돌아보며 물건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나도 작은 박물관을 차려보고 싶다는 꿈까지 감히 꾸어본다. 🐼



# 유쾌 상쾌 통쾌한 ‘바람’

글 길문숙 회원

물경 34년째다. 박물관과 함께한 세월이.....

博研會. 1982년 3월 9일 ‘제 6기 박물관 특설강좌’로 시작된 인연이다. 지금도 매달 두 번은 박물관 회 연구강좌를 듣고, 두 번은 외부에서 자체 강좌를 마련해 공부를 계속한다.

올해는 ‘고려사’를 공부한다는데, 아마도 초초울트라 심화과정쯤 될 거라 짐작한다.



첫해 답사에 데려갔던 중1 아들이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두었을 만큼의 세월.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박물관도 현재의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금은 사라진 중앙청 건물로, 다시 지금의 국립고궁박물관을 거쳐 용산으로 여러 차례 옮겼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건, 만나면 언제나 즐겁고 활기차며, 호기심 만발의 대화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박연회의 주축인 6기가 입학하던 1982년에는 박물관회 강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때였다. 지금처럼 화요일, 목요일만 있는 게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네 반이 있었는데도 경쟁률이 2대 1이 훨씬 넘었다고 한다. 꼭 붙고 싶어서 알 만한 사람을 모두 동원하여 여기저기 부탁을 하는 일도 있었다니,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한 6기생은 거의 천여 명이었다. 1년을 꽉 채워 수료증을 받은 회원

만 해도 872명이니 이 또한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졸업 이듬해인 1983년 2월 조자룡 선생님의 민화 강의로 시작된 박연회의 강좌와 답사는 지금까지 쉬 없이 이어지고 있다. 첫해에는 400여 명이 강좌에 참여했고, 여섯 차례나 진행된 답사 때에도 버스가 4대나 필요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연구 강좌 시스템을 아니라 각 기별로 자율적으로 강의와 답사를 진행했다. 박연회 회원들이 그 오랜 세월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저력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도자, 회화, 복식, 건축, 불교미술, 석조미술, 역사 일반 같은 분야를 그야말로 동서양을 넘나들며 공부했다. 답사 역시 각 대학의 박물관을 비롯하여 아주 작은 박물관까지 찾아다녔으며, 전국의 문화유산 가운데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이다.

2000년 5월 시안, 란저우, 둔황, 우루무치, 투르판, 키질, 카쉬가르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답사를 시작으로 해외 답사도 계속했다. 함께 모여 일정을 짜고, 자료집을 만들고 하는 준비 과정부터 현지에 가서 겪는 우여곡절까지 함께 했기에 더욱 소중한 경험이었으리라. 지금도 엇그제 일처럼 란저우 병령사 석굴을 보러 가기 위해 배를 탔던 일, 둔황 월야천의 모래언덕에서 미끄러진 일, 쿠차의 키질석굴을 둘러보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꿈꾸는 표정이 된다.

한국, 중국, 일본, 서양의 도자기를 몇 해 동안 공부하고 나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경덕진, 아리타, 이마리 등 도자기 마을들을 찾았다. 공부한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여행이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또한 같은 것을 보고 싶어 하고, 비슷한 데서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하는 여행이라니, 생각만으로도 부럽다. 해외 답사 출발 날 여권을 찾지 못한 회원을 위해, 급하게 임시 여권을 만드느라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던 일이나 중국 실크로드 오지에서 샤워하다 물이 안 나와 고생했던 일도 지금은 즐거운 추억이다.

회원 가운데는 비구니 스님이나 훗날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을 지낸 화장품 회사 사장님 같은 특이한 분들도 계셨다. 30대 후반쯤에 만나 대부분은 70대가 된 오늘까지 쌓아 온 세월이야말로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회원들을 끈끈하게 이어 주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서로 속마음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친척보다 나은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아직도 매주 30여 명이 넘는 회원이 모이는데, 다른 기졸업생 가운데 ‘주워 온’ 올해 환갑인 막내가 온갖 심부름을 도맡고 있다. 도저히 그 정도 나이라고는 믿기 힘든 회원들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진다.

“그렇게 밝고 활기차게 사시는 비결이 뭔가요?” 하는 물음에 돌아오는 대답.

“박물관이 바람 들게 하는 거야.”

박물관과 연애하며 살아오셨다는 말씀. 정답이다.🐼



## 능산리사지 백제금동대향로와 금동광배의 합금 조성 및 도금층 특성

글 강형태, 고민정, 김연미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국립부여박물관 보존과학실

능산리유적에서 발굴한 금속제품의 성분조성을 비파괴분석법으로 조사하였다. 능산리유적의 금속제품을 분석한 결과 동합금, 금동, 금, 은, 도금은 등으로 구분되며 동합금 및 금동제품의 소지는 순동, 청동, 황동 등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능산리유적에서 발굴한 금속제품 90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백제금동대향로 및 금동광배의 데이터(성분조성, 납동위원소비, 도금층)를 종합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백제금동대향로



광배

## 1. 성분조성

백제금동대향로 및 금동광배 소지의 합금조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모두는 구리와 주석으로만 이루어진 전형적인 2성분계통의 청동 합금이었다. 백제금동대향로는 구리 82~86%, 주석 13~14% 범위이며 나머지 5개 성분(Ag, Ni, Co, Sb, Fe)은 0.1% 이하인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는 성분이다. 금동광배는 구리 82~85%, 주석 11~13% 범위임을 알 수 있다. 불순물로서 6개의 미량 성분(Zn, Ag, Ni, Co, Sb, Fe)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납의 함량이 0.91~1.9%로서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료의 불순물로서 포함된 것이지 납을 첨가한 것은 아니다.

표. 능산리사지 백제금동대향로 및 금동광배 소지 금속의 성분분석 결과

유형명	분석방법	주성분조성 (wt.%)								
		Cu	Sn	Pb	Zn	Ag	Ni	Co	Sb	Fe
백제금동대향로	원자흡광분석	81.5	14.3	0.07	-	0.04	0.04	0.02	0.22	0.07
	비파괴 X-선 형광분석	85.9	13.5	0.55						
		(±0.8)	(±0.6)	(±0.2)						
금동광배	원자흡광분석	81.6	11.3	0.91	0.01	0.06	0.04	0.01	0.23	0.38
	비파괴 X-선 형광분석	85.1	13.0	1.9						
		(±1.3)	(±1.0)	(±0.3)						

### 1) 용융온도

두 금동제품 소지의 성분조성에서 주석은 각각 13~14% 및 11~13%이므로 구리합금의 상태도로부터 용융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태도에서는 청동의 주석농도를 X축, 온도를 Y축으로 하여 금속의 상태 즉, 액체, 고체와 그 결정형의 차이 및 용해점을 나타내고 있다. 백제금동대향로 및 금동광배의 경우 주석 함량이 12~14%이므로 용융온도는 950~960℃ 범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주형에 주입할 때는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 주입하므로 실제 용융온도는 대략 1050℃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2) 강도

구리와 주석 합금의 함량에 따른 기계적 강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백제금동대향로 및 금동광배 청동소지의 주석 함량이 12~14%이다. 이때 브리넬경도는 80~83HB이며, 인장강도는 48~50kgf/mm<sup>2</sup> 정도로 최고의 강도 값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납동위원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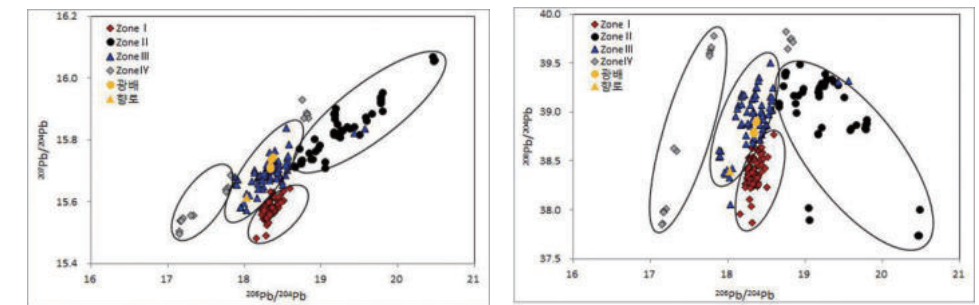
금동대향로 및 금동광배 소지에서 각 시료의 납동위원소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표에 나타내었다. 납의 함량이 1% 이하로 미량인 경우 납동위원소비 결과는 납뿐만 아니라 원광석의 산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금동광배의 경우에도 납의 함량이 0.91~1.90%이어서 의도적으로 납을 첨가한 것은 아니다.

납동위원소비를 확인하면 향로 및 광배는 영남육괴 및 옥천변성대가 중심인 Zone 3 지역의 광석에 모두 포함되었다. 이 지역은 부여 지역과도 근접한 위치에 있다.

표. 백제금동대향로 및 금동광배 소지의 납동위원소비

유형명	납동위원소비				
	206/204	207/204	208/204	207/206	208/206
백제금동대향로	18.026	15.615	38.395	0.8663	2.130
	18.078	15.654	38.543	0.8659	2.132
금동광배 1-1	18.376	15.746	38.911	0.8569	2.118
금동광배 2-1	18.334	15.713	38.798	0.8570	2.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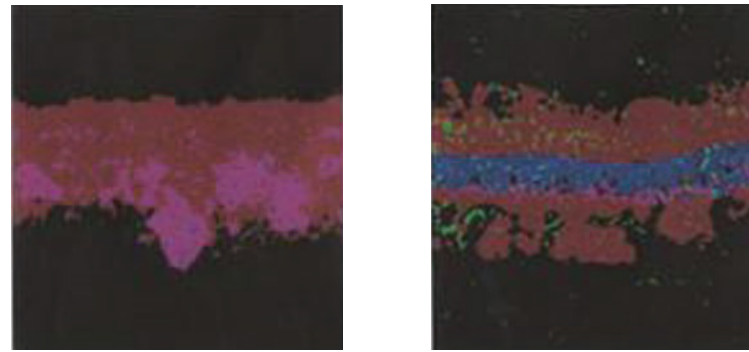
도. 한국 남부의 영역별 방연석의 납동위원소비 분포도(Jeong et al., 2012)와 백제금동대향로 및 금동광배의 분포 위치(Zone 3에 포함됨)



## 3. 도금층

향로에서 입수한 도금층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도에서 나타내었다. 맵핑 사진은 도금층의 성분 조성을 색깔로 나타낸 것이다. 도금 층 자체의 금 성분과 소지의 구리 성분이 거의 완전히 혼합된 색깔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기공 속에 금 성분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금박 도금층의 두께는 측정할 수 없었고 이 부분의 성분조성을 분석한 결과는 대략 금 60%, 구리 37%, 산소 3% 정도인데 이러한 현상은 금아말감도금법에 의한 성분의 확산현상과 구리 성분의 산화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금동대향로는 금아말감도금기법으로 도금할 때 열을 가열하여 수은을 휘발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열에 의해서 도금층의 금과 소지의 구리 성분 간에 확산현상이 일어나 도금층과 소지의 구리 성분 간의 경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향로 광배  
도, 백제금동대향로 및 금동광배 도금층 단면의 주사전자현미경 맵핑 결과  
(■;Cu, ■;Au+Cu, ■;Au)

금동광배의 도금 편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맵핑하고 분석한 결과를 도에 나타내었다. 맵핑 사진은 도금층의 성분 조성을 색깔로 나타낸 것으로 세 개 층이 관찰된다. 금과 구리의 혼합 층(■) 및 금 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각 층에는 많은 기공이 뚫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외층에는 구리성분이 도금 층을 덮고 있다.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산소(■) 함량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백제금동대향로의 도금 층과 동일한 확산현상과 부식이 진행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

❖ **심사평** 김규호(공주대학교 교수)

상기 논문은 선정된 연구 대상에서 연구의 가치성과 중요성이 확인된다. 연구 방법도 가능한 비파괴 분석 결과를 기초로 능산리사지 출토품의 연구 대상들을 평가한 점은 박물관 보존과학에서 추구해야 할 분석 방향과 정합한다. 다만 병행 연구된 시료 분석의 해석과 이에 대한 필요성이 박물관 보존과학 관점에서 제시되었다면 보다 참고 문헌으로 활용 가치는 크다고 생각된다.

연구 결과에서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하여 백제금동대향로 및 금동광배의 원료 산지가 중국 북부가 아닌 영남 옥괴 및 옥천변성대가 중심인 지역 광산일 가능성을 제시한 점은 유용한 보존과학적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분석 결과에서 연구 자료의 목적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들이 확인된다. 도금층 분석에서 수은이 검출되지 않는 점과 도금층의 두께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 **심사평** 김수기(용인대학교 교수)

백제 금동대향로와 금동광배의 원료산지를 밝힌 것은 독창적이며, 두 유물의 합금조성비, 주조온도, 원료 산지 등의 과학적 연구를 통한 논문은 학술적으로 매우 흥미롭고 좋은 연구로 사료된다. 백제 금동대향로와 금동광배의 비파괴분석으로 도금층을 분석하여 도금색의 변색된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인다.



귀이개, 국립중앙박물관

## 胡蝶夢

더운 여름날  
바람 솔솔 통하는 대청마루

어여쁜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운 남편.

달그랑 달그랑 귀이개 소리에  
스르르 선잠이 든다.

꿈속에서 나비가 된다.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것인지,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것인지..... 🐛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金正泰
副 會 長		申聖秀 洪錫肇
理 事		金英那 金信韓 南秀淨 朴殷寬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許裕秀 洪政旭 禹燦奎 鄭溶鎭
監 事		金教台 朴禎原
事 務 局 長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원, 청룡 오십억원, 백호 삼십억원, 주작 십억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 주작회원

尹光子 회원

## 현무회원

하나금융그룹 金正泰

## 천마회원

千信一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孫昌根	소장가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申憲澈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朴殷寬	(주)시몬스 회장

##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 具在善	Actium 부회장
庚園	광제사 주지
鄭溶鎭	신세계 부회장
都炯泰	갤러리현대 부사장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洪錫肇	(주)BGF리테일 회장
李垞旻	Mashup Angels 대표

尹在倫	서울대학교 교수
許裕秀	GS에너지(주) 부사장
洪政旭	(주)헤럴드 회장
南秀淨	(주)썬앳푸드 대표
金信韓	대성 사장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趙顯相	효성그룹 부사장
李圭植	경신금속 대표
曉 警	회원

## 은관회원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주)종합전기 대표
成弼鎬	광성기업 대표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芳熙	(주)풍산주택 회장
金寧明	(재)예울 이사장
최철원	M&M(주) 사장
金承謙	서릉지구(주) 대표이사 부사장
姜院基	오리온 대표
金芝延	(주)컨셉 대표
李教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金英姬	회원
朴禎原	(주)두산 사장
梁洪碩	대신증권(주) 사장
許允秀	(주)ALTO · (주)ALTEK 부사장
宋 哲	성문출판사 대표
金南延	(주)동훈 대표이사
朴知原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全裁範	금강공업 부사장
許允烘	GS건설 상무
金教台	삼정회계법인 대표

## 청자회원

申硯均	아름지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珉	김&장 법률사무소
玄明官	일진홀딩스(주) 대표
許正錫	OCI 사장
李宇鉉	스무디킹코리아(주) 대표이사
金性完	수원대학교 이사장
李仁洙	2014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
金榮秀	호성홍업회장
胡鍾一	성암고서박물관장
趙炳舜	

愼昌幸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李雲卿	남양유업 전문위원
金英惠	제일화재 이사장
李美淑	삼표산업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李起雄	열화당 대표
辛永茂	범무법인 세종 대표
辛炳讚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朴載蓮	성곡미술관 이사
李鈴子	
朴海春	
金宗學	서양화가
한국도로공사	
玄智皓	(주)화승R&A 부회장
金寧慈	(재)예울 명예이사장
金正宙	(주)NXC 대표이사
梁汰會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丁恩美	블룸앤코 대표
鄭義宣	현대자동차 부회장
崔惠玉	회원 · 자원봉사
洪誠杓	고려상사(주) 부회장
崔世勳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朴世昌	금호타이어 부사장
崔杜準	(주)동남유화 부회장
李海珍	NHN(주) 이사회 의장
金澤辰	(주)엔씨소프트 대표
李善眞	목금토갤러리 관장
洋賢財團	
薛允碩	대한광통신 사장
李英純	한국미술협회 회원
朴正遠	재미교포
金載烈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金仁順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
曹在顯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曹榮美	경동소재 대표이사
金世淵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兌炫	성신양회(주) 사장
Joseph Bae	KKR Asia 대표
具本商	LIG 빅스원(주) 부회장
朴善正	대선제분(주) 상무
金裕錫	행남자기 대표이사
咸泳俊	(주)오뚜기 회장
金載勳	영풍제약 부사장
高基瑛	(주)금비 사장
尹賢慶	동화약품 이사
韓榮宰	노루홀딩스 회장
崔仁善	회원

吳勝敏	동일산업(주) 부사장
俞承熹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李宰旭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李萬圭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趙希卿	(주)가온소사이어터 대표
朴宣注	영은미술관 관장
尹 寬	BlueRun Ventures 대표
林鍾勳	한미IT(주) 대표이사
柳智勳	영남제분 사장
李濬宇	홍아해운 전무
楊仁集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尹勝鉉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吳治勳	대한제강 대표이사 사장
李學俊	서울옥션 대표
李芝衡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京姬	(주)피오나조경 대표이사
韓惠舟	화정박물관 관장
柳英芝	유급와당박물관 기획실장
李胤基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崔再源	SK부회장
李甲宰	삼일회계법인 전무
姜承模	한국석유그룹 부회장
金斗植	범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成來恩	영원무역 전무
張升準	매경미디어그룹 전무이사
李宇成	이테크건설 전무
張仁宇	선인자동차 대표이사
朴廷彬	신원 부회장
具本赫	LS-Nikko 동제련 전무
禹燦奎	학교재 대표
李哲雨	롯데쇼핑 총괄사장
徐東姬	회원
千碩圭	천일식품 대표
金東官	한화 큐셀 기획실장
洪正國	(주)BGF리테일 이사
陳在旭	하나UBS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崔正勳	대보건설(주) 전무
崔雄善	(주)인팩 대표이사
朴璟鎭	(주)진주행 대표이사 부사장
洪正道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표
沈宗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金侖壽	지리산 문학관 관장
李柱翰	(주)삼익유니버스 이사
李常宰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周成	세아제강 상무이사
金恩惠	서울도시가스 이사

許辰秀	SPC(주) 전무
洪範碩	(주)남양유업 부장
具本權	(주)LS 차장
朴載相	
鄭志伊	현대상선 전무
方正梧	TV조선 실장
尹普鉉	호림박물관 이사
金根鎬	洪元福 회원
朴俊泳	본음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金建昊	(주)삼양 홀딩스 부장
南兌勳	국제약품 대표이사 부사장
洪振碩	(주)남양유업 상무
曹榮峻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李承勇	(주)에이티넵파트너스 대표이사 사장
洪碩杓	고려제강 상무
李廷龍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洪進基	마리오아울렛(주) 실장
具東輝	LS산전(주) 부장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 화 (02) 2077-9790~3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inmk.org